

시론



박노식 시인·시엔영 원장

도시를 요란하고 번잡스러워서 당최 여유를 내주지 않는다. 마치 꼭 막힌 고집불통의 심보를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

어쩌다 도시인의 초대장을 받아 하룻밤 묵게 되는 날은 좀이 쑤신다. 그런 날의 밤은 가위눌림이 있고 악몽이 찾아오기도 한다. 한 줌의 자유로움과 평화스러움마저 느끼지 못하니 웬변도 없다.

그러니까 도시는 TV 속의 전쟁광들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몹시 불편하고 불안스러워서 쉬이 적응이 안 된다. 도시에서 필자는 왕따다.

하지만 새벽에 어김없이 눈을 뜨는 건 몸의 기억 때문이다. 늘 거리낌 없는 생활은 자연 속에서 익힌 것이므로 눈치 볼 일 없다.

그날 새벽, 다급히 아파트를 빠져나와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우연히 비둘기 우는 소리를 들었다. 오래 귀를 기울여 봤다. 조금 떨어진 대로는 자동차의 소음들로 어지럽지만, 비둘기는 아랑곳없이 울었다. 목소리를 잃지 않은 비둘기에게 경의

이런 봄, 저런 봄

를 표하면서 필자는 그 자리를 떠나 곧장 시골로 도망쳐 왔다. 그래서 몸이 도량(道場)이다.

여전히 서리가 내리지만, 산중의 봄은 한 낮이 되어야 그 고운 햇살을 받을 수 있다. 몸이 비로소 햇빛의 온기를 느끼며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봄을 들러본다.

마당 어귀의 매화는 이미 지쳐있고 산수유는 누렇게 터져서 온몸에 열병을 앓고 있다. 수선화는 울타리 옆으로 압전하게, 그리고 질투를 유발할 듯한 속마음을 감춘 채 올라온다. 도화와 오얏꽃과 불두화 와 사과꽃과 목련꽃은 멀었고, 개나리꽃은 옛 마을 금천 할머니 댁 돌담 끝에 핀 것을 산책길에 보았다. 사흘 전엔 묵은 백합 구근을 조심하 파서 장가 아래로 옮겨 심었다.

굳이 노동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미 삼아 하는 일도 아닌 것이 텃밭 일이다. 이때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마늘밭과 양파밭의 잡풀들을 뽑아야만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는다. 퇴비도 늦추지 않고 사이사이에 뿌려줘야 한다. 풀을 뽑는 순간엔 샅된 생각이 사라지고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으므로 일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간간이 일어서서 허리를 펴면 먼 산의 흰 구름이 잠깐 누워서 졸기도 한다. 부러운 순간이다. 그래서 이 순간을 지켜보는 게 필자에게 여유다.

그때 마침 왕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풀린 눈으로 좌우를 살펴보면 어김없이 꿀벌이와 있다. 주위가 워낙 고요하므로 고작 새끼손톱만 한, 한 마리 벌의 날갯짓이 크게 들리는 것이다.

이 녀석은 아주 부지런히 옮겨 다니는데 그 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개별꽃이다. 하지만 그 양증맞은 꽃이 마당 한 편 의 자리만 한 공간에 때로 피어 있으니, 그 벌에게 천국 같은 곳이나 다름없다. 해방을 놓을 사왕이 아니므로 뒷발을 떠날 때는 반대편 이랑으로 조심하 걸어 나와야 한다.

이처럼 일에 열중하는 한 마리 꿀벌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이란 바로 이런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난주 휴일에는 한바탕 행사 아닌 행사를 치렀다.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인이 그의 지인 셋과 함께 필자의 창작실을 방문한 것인데, 이유는 시인의 집이 금금해서 구경 삼아 왔다는 것뿐. 그들은 준비한 재료로 조개탕을 끓이고 파래로 전을 부쳤으며 손수 밥을 지어 김밥을 여러 줄 말고 수다를 떨다가 해질 녘에 빈 그릇만 남기고 돌아갔다. 거실의 소란스러움이 오래도록 남아서 설거지를 미룬 채 그대로 드러누웠다.

봄은 여성들을 아저랑이처럼 들뜨게 하는 모양이다. 오늘에야 그녀의 미룬 설거지를 창밖을 보며 해결하는데 손바닥에서 자꾸 집사가 미끄러진다.

社說

광주권 의대 정원 확대 기대에 못미친 사정 있었다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2024학년도 3천588명에서 2027학년도에는 490명 늘려 3천548명을 선발한다.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씩 확대해 3천671명으로 조정된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218명으로 가장 많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가 2027년 39명, 2028년 이후 49명을 추가 배정받았다. 2027학년도 기준으로도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각각 72명, 강원 63명 순이다. 광주는 50명에 그쳤다. 2028학년도부터는 더 벌어진다. 부산·울산·경남 121명,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각 90명, 강원 79명인데 반해 광주는 62명으로 그 차이가 뚜렷하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확연한 격차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두 대학은 2027년에는 각각 31명, 19명이 늘어난 156명, 144명을 모집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38명, 24명씩 더해 매년 163명, 149명을 뽑는다. 공동 생활권인 광주·전남 시도민들도 당초의 기대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 특히 2024학년도 정원 대비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비수도권 소재 의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전남 목포대·순천대 통합 국립의과대 정원을 100명으로 확정하는데 따른 영향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번 발표는 4월 중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둔 사전 통지로, 대학들의 의견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 등 실무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의 신청 여부를 깊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해졌다. 전남대와 조선대 또한 교수진과 강의 시설, 기자재 확충 등이 필요하다.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 협력해 나가고 자체 역량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더 있다. 대학병원의 신·개축 등 인프라 확대와 지역의사제 안착을 위한 후속 관리 등이 그것이다.

지방소멸시대의 지역의료 위기 극복에 탄탄한 자양분이 돼야 한다. 정부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겠다.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광주와 전남도가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행정통합 준비에 여념이 없다. 시는 실무추진단을 가동해 법적 정비, 재정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도의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약 2천5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시행령 78건의 초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도는 확대 개편한 실무단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분야별 현황 전수조사와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에 착수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도 급히 마련가진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단은 도청을 방문해 대민서비스와 전산망 통합 등 제반 상황을 점검했다.

무엇보다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겠다. 구체적 통합 일정과 핵심 과제 가이드라인 설정,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대응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정비돼야 한다. 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해야 할 민원 서비스, 통합 시스템 구축 등에 차

질이 있어선 안 된다. 초기에 불가피한 혼란이라며 어쩔수 없이 돌려대도 용인될 리 만무하다. 행안부가 조직·인사 등 행정통합 사무를 논의·조정하기 위해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전남부서를 통해 정교하게 밀착 지원할 방침이지만 광주와 전남도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의 성장을 위한 대전환인 때 문이다.

3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3월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을 선출한다. 7월1일 제1회 광역통합모범로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분야 및 단계별로 냉철하게 점검하고 쟁점에 대해선 선제 대응하며 제도적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 27개 시군구가 함께 균형발전하는 체계를 만들어 320만 시도민 모두가 기회를 누리는 역사적인 첫 출발을 앞둔다. 미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빈틈이 없어야 한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고



김기태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강진 월출산 남쪽 백운동에는 오래된 차(茶) 이야기가 전해진다. 백운동 이야기는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숲속에 '백운동 별서(別墅)'를 처음 지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강진 백운동 별서'를 쓴 한양대 정민 교수는 "강진 다산초당, 담양 소쇄원, 명옥헌, 해남 일지암 등과 함께 백운동별서는 호남 전통 원림의 원형"이라고 평했다.

'백운동정원'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담양 소쇄원, 완도 부용동과 함께 호남의 3대 정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백운동별서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월출산 남쪽 기슭의 '히든 플레이스'였다. 그렇다면, 백운동별서는 누가 왜 지었을까? 조선시대 이담로(李 聃老)라는 선비가 월출산 남쪽에 들어와 바위에 '백운동(白雲洞)'이라 새기고, 조영(造營)한 원림이 지금의 백운동별서라는 것이다. 별서(別墅)는 경치 좋은 곳에 학문과 풍류를 즐기게 하기 위해 따로 지은 별채, 백운동별서를 처음 지은 이담로는 "과거 급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미련 없이 은거의 삶을 택했던 인물인 듯하다"고 정민 교수는 추측했다. 어쨌든 이담로를 입산조(入山祖)로 하여 원주이씨 후손들이 백운동에 살았다고 전해진다.

백운차실의 서사(敍事)

특히, 백운동 일원에는 아생차나무가 많아 고려시대부터 '금릉 월산차'의 천년 차향이 가득했다. 금릉(金陵)은 강진의 옛 이름이다. 인근 월남사 승려들도 이 차를 즐겼다고. 그러나, 조선시대부터 고려의 차(茶)는 점차 기운을 잃었다. 그러던 중 다산 정약용이 백운동별서를 방문한 뒤 이담로의 후손 이시현을 제자로 삼아 학문과 차(茶)를 나눴다. 이시현과 제자들은 다산이 고향 남양주로 돌아가더라도 "매년 봄 강진의 차(茶)를 보내겠다"고 약속한다. 다산이 해배(解配)돼 남양주로 돌아간 후에도 이 약속은 지켜졌다고 한다. 강진 제자들과 다산의 차(茶) 약속인 이른바 '다산계(茶信契)'. 심지어 다산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강진과의 차(茶) 약속은 계속됐다. 이 다산계를 이어오던 이시현의 후손 이한영은 원주 이씨들이 지켜온 전통에 따라 차(茶)를 만들었다.

이러던 중 일제가 조선에서 생산된 차(茶)를 일본 차(茶)로 둔갑시키자, 이한영은 '백운옥판차(白雲玉板茶)'를 세상에 내놓았다. 한국 최초의 국산 차(茶) 브랜드였다. 다산 정약용이 월출산 최고봉 옥판봉에 반해 남겼던 시, 백운첩(白雲帖)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이라고 한다. 백운옥판차는 조선의 자존심과 한이 담긴 진짜 우리의 차(茶) 이름이었다.

월출산 남쪽 월남사지 아래 이한영 생가는 새로 단장해 문을 열었다. 이곳이 백운차실(白雲茶室). 백운차실은 월출산 산세와 자연 풍광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통창으로 차정(茶亭)을 구현한 한국적인 전통차집의 모습이다. 이 백운차실은 이담로의 후손이자 이

한영의 고손녀인 '이한영 전통차문화원' 이현정 원장이 우리 차(茶)의 맥을 잇고 있다. 이현정 원장은 대학에서 제다(製茶) 박사 학위를 따기도 했다.

백운차실은 '티 로드', '티 피크닉', '티 교육' 등을 진행하며 강진 관광의 필수 방문지가 됐다. 백운차실은 '차 바구니를 들고 파란 잔디 위에서 즐기는 차(茶) 소풍'을 비롯하여 '다산이 사랑했던 월산떡차 만들기 클래스', '내가 탄 차만으로 차를 만드는 내판내 차도 체험', '천년 차 문화를 잇는 길을 걸으며 초록 다원에서 힐링 명상' 등 차(茶)를 매개로 한 웰니스(wellness) 관광을 이끌면서 글로벌 핫 플레이스가 됐다. 지난 2024년 세계적인 명품 '까르띠에'와의 협업에 이어 최근에는 명품 '까사 로에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현정 원장이 우리 차(茶)를 가르치기도 했다.

원주 이씨 가문의 대를 이어 오래된 제다(製茶) 스토리를 품고 있는 백운차실은 이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명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강진군은 월출산 남쪽 마을 일대를 '달(茶) 관광 스테이'로 키우려 하고 있다. 월출산, 월남사지, 달빛한옥마을 등 자연·인문 자원을 묶어 '달빛야행', 차밭·월남사지 주변 야간경관, 다도·문예체험과 같은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달빛과 구름이 머무는 백운차실 주변에 전시·이벤트·체육 활동을 물론 일과 업무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위케이션센터도 짓는다. 오는 9월에는 '강진 월출산 차(茶) & 정원' 페스티벌도 열릴 예정이다. 400여 년 전 은둔의 별서가 세상 밖으로 나와 어디까지 번신을 거듭할 지 설레는 기대를 갖게 한다.

독자투고

전국적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리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한때 아시아의 모범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마약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대마, 코카인, 필로폰, 펜타닐 등 수많은 마약이 태국과 중국, 미국, 멕시코 등지에서 밀물처럼 유입되면서 오히려 마약공화국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자조감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마당에 최근 소위 '마약 던지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사회 각 계 각층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가 다스어야 할 수 있는 '마약 던지기' 수법이라 함은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텔레그램을 활용하여 연락 후 가상계좌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확인 후 판매자가 약속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던져놓으면 이를 구매자가 회수해가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최근 판매 수법에 활용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1kg이상의 아편, 50g이상의 헤로인과 필로폰을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최대 사형에 처하고 재산도 모두 몰수하

는 극약처방으로 마약사범을 다스리고 있다. 비단 이웃 국가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마약범죄는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나라를 병들게 하는 만국행위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 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마약의 유혹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김덕형·장성경철서 참여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지난해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오른 여파로 교육 물가가 15년 만에 가장 폭으로 상승했다. 16일 국가데이터터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 상승률은 2.3%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뛰었다.

작년 교육 물가 상승률은 2010년(2.3%)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교육 물가 상승률은 2009년 2.5%에 달했다가 2011년 이후엔 대체로 1%대 내외를 유지했고 2024년엔 1.7%였다. 지난해 교육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2.1%)를 0.16%p 끌어올렸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등록금 인상이 지난해 교육물가 상승의 주 요인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70.5%인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2012년 '반값 등록금' 운동 이후 대다수 대학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에 동참했으나 지난해부터 재정 위기를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인상을 선언했다.

평균 인상률은 사립대(154곳) 4.9%, 국·공립대(39곳) 0.7%로 집계됐다.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10만원으로, 전년보다 28만원가량 올랐다. 사립대는 800만2천400원, 국·공립대는 423만8천900원이었다. 사립대입금 물가는 4.5% 오르며 2008년(7.2%) 이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공립대입금 물가 상승률은 0.8%로 2010년(0.9%)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연남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